

닷컴 버블·AI 열풍… 청구서의 행방은

2000년 봄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해 3월의 풍경을 잊기 어렵다. 증권사와 PC방에는 사람이 물렸고, 인터넷이라는 말만 붙으면 주가가 올랐다. 코스닥 지수는 그해 3월10일 2천834(현행 기준)로 정점을 찍었고, 매출이 수십억원에 불과하던 새롭기 술의 시가총액이 현대자동차를 앞지르기도 했다. 그러나 그해 연말 지수는 525까지 떨어져 아홉달 만에 8할이 사라져 버렸고, 미국 나스닥도 급락하며 시가총액 5조달러가 증발했다.

그로부터 26년 후, 같은 집안에서 뿔
선 큰 규모로 펼치고 있다. 아미
존-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의 올
해 AI 스타트업 투자는 약 78억 달러
로 전년보다 70%가 넘었다. 2000
년대 초가 시가총액 5천 달러를
세게 지고서 올랐다가 5년 뒤에는
연비까지 55달러를 넘겼다. 그
때 지어놓은 돈을 쓰는 것은 곡
익과 실을 파는 회사이고, 한국은 그
삼자투자를 받는데는 나쁘지 않다. 국
회(MF)가 어떤 곡물 성장률을 올려
주는 규모도 안 물어주니 속한다. 자
연스레 AI 업체에서 거래하러 아니
라는 돈이 다시 불린다. 그러나 어
것은 농민이 가져오는 월권이다. 기
름은 언제나 거저 뒤에가 기름이었
다고 불린다. 불어와서 기름 그대
무엇 할까? 무엇 다른가? 그

세상읽기



© 2006 The Authors
Journal compilation © 2006 Blackwell Publishing Ltd

고 꺼진다면 최종 청구서가 누구에

다른 점을 살펴보면, 돈의 출처가 다르다. 2000년의 거품은 매출 없는 회사를 '방탄차 수로' 상장시켜 개인 투자자의 돈으로 불어난 거품이었다. 지금 부자를 주도하는 빅테크는 영업 이익으로 데이터센터를 짓는다. 그래서 이번 거품이 깨진다면 회사가 사라지는 한계가 아니라 과잉 실행의 감가상각이 이익을 잡아먹는 형태로, 개인 투자자보다 사모 신용과

시제사 상을 먼저 때리는 행태로
을 가능케 이 크다.

거품이 넘기는 것도 다르다. 닥깃
버블은 광케이블을 낀다. 광섬유
대부분은 볼도 못 보지 못한 채 땅에
매워지지만 케이블은 적지 않았고, 그
열광의 최선 위에서 유튜브와 넷플
릭스 서비스가 자리났다. 이런 거품
이 남기는 GPU다. 3~5년이면 구
형이 되는 장비다. 무엇보다도 청구
서를 받게 될 사람이다. 2000년

답시와 다르게 지금은 성장률 자체가 AI 사이클 위에 얹혀 있다. 게다가 이 호황이 특정 기업에 한정될 뿐 사회 전반으로 퍼지지 않는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첫째, 정부는 성장을 상향에 도취하지 말고, 'AI 투자가 꺾이는 해'를 재정·산업 계획의 기본 시나리오에 넣어야 한다.

올해, 반도제 기업은 고객의 주문서가 아니라 최종 수요를 봐야 한다. AI 시비스가 실제로 돈을 버는지, 그 매출이 순헌 이익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따지는 일은 이제 반도제 회사의 재무 업무다. 셋째, 지역과 개인은 호황의 열매를 나눠 갖되 사이클과 함께 무너질 구조는 피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꺼져 뒤에다 사람을 메달을 쓰고 카페에 오였다. 기쁨과 함께 사라진 것은 인터넷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팔

어떤 주사였다. 그 시점을 넘긴 뒤
 사물은 겨울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
 의 기온을 겨울이 되었다. 실제 마른가
 지다 어느 시점이 되면 기온은 남고
 겨울이 겹칠 것이다. 겨울이 겨울이
 있는지는 그때 가사할 수 있을지.
 마지막 청구서가 누구에게 갈지는
 지금도 알 수 있다. 호환이 되기 전에
 청구서가 누구에게 가는지 따져 보
 고. 그로 인한 생길 문제에 선제적으
 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할 때다.

경기도의회가 주장해 온 '민생 예산' 일부가 복원됐다. 산후조리비 지원, 보육 지원, 아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어르신배달 음식물품 지원, 발달장애 시·군·읍·면·동 주민자치회 지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 관리금,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 등이다. 모두 216억원이다. 이들 예산은 추경예산에 삭감됐으나 미반영됐었다. 경기도의회가 복원을 주장하며 두 집행부와 막판

까지 줄어든바를 봤다.

당초 경기도는 5선465의원을 시킴하는 김억추경
을 제출했다. 경기도에서 예산을 줄이는 김억추경
은 13년 만에다. 재정 보상을 선언한 추미에 도지사
의 간곡 의중이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더불어민주
당 의원들의 반대 높아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안
경 결의 대회를 했다. 9월18일이던 차에 예결정
을 타달을 좌파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은 소용 부족이다. 5천억
여원의 감액추경안이 실각별로 수렴됐다. 업무 성격
상 모두 열여덟 줄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라도 최소
한 모의 연이 높은 필요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있
다. 이런 난맥상을 지적하는 소회가 아닐 회화사에 있
다. 내년도 본 예산 심사에서는 “예산안이 제출된 뒤
애자 지치를 확인하고 오랜 시간 맞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당부였다.

중심 의의가 아니라, 비단 남 의의만 소중하다. 이미 의도의 불확실성 제1호는 우리가 일견언어에 가문데 200여만 복원을 강요하는 신이다. 가문에 한해 초하버만 강단을 강요한다. 2022년 본산장이 곧 신이다. 전체 규모 2022년은 이미다. 민생생물 주장은 또 한해 2022년 민생한 개미가 아니다. 민생생물 규모가 수 이 될 수도 없다.

지사의 한해 기조도 변한다. 본산에서 또 한해 일견언어 가능하다. 이미다. 삼국 명목 삼국 비 50%까지 나타내지는 주조도 아니다. 2025년 본산에서 더욱 적다. 본산이다. 예산안이 재출본되어 기 사각한것들 강등을 커질 수 있다. 반면에 5천 원의 추가한 심의로 확인할다. 그 마지막 회기가 2월로 이른다.

의외가 원하는 소동의 방향과 형식은 충분히 제
다. 재정 비상은 무차별 삭감의 근거가 아니라는
삭감 필요성과 거론은 도의화와 연결하지는 것,
의외의 조정-형식은 명쾌하게 해달라는 것 등
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도의화와의 소
원이다. 추 지사가 인사말을 남겼다. "머리를 맞대
지방재정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자" 곧 이 약속을
행위 시킬 것이다.

강화·응진 기본소득... 지속가능이 문제다



날 아침 6시

어른들의 폰오프, 가능할까

10월 어느 날 아침 6시, 휴대전화가 켜지지 않았다. 전원 버튼을 몇 번이나 눌렀지만 화면은 깨달기만 했다. 급한 전화가 오면 어쩌나. 카카오톡으로 중요한 소식을 전해줄지 어쩌나. 피리를 무는 걱정에도 세수도 하는 등 마는 등 출근 준비를 했다.

문득 서랍 속 공기가 꺼져 떠올랐다. 아들의 도움으로 기기로 통화가 가능하도록 연결하자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출근길에도 불안과 불편은
가시지 않았다. 평소 챙겨 보던 뉴스
도, 유튜브로 들던 노래도 없었다. 익
숙한 즐거움이 사라지자 아침이 낮
설었다.

그때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가
걸려 왔다. 저장된 연락처가 없어 목

소리만으로 상대를 알아채기 어려웠다. "누구세요?"라는 물을 뒤에
저저이 흐른다. 휴대전화가 그자 나

설상가상으로 새로 연결한 전화기마저 꺼졌다. 불안이 치솟았지만 충전기를 연결한 뒤에 방전임을 알았다. 이번에는 기기의 뒷면이 떨어졌다. 테이프를 겨우 붙여 통화가 가능

다음 날 저녁 수리를 받기까지 답답함은 이어졌다. 이름 대신 숫자만 뜨는 전화, 확인할 수 없는 카톡과 문자, 연락처가 없어 먼지 걸 수 없는 답답함. 뜻밖에 찾아온 '폰오프'는 휴식보다 불안에 가까웠다.

작은 기기 하나가 내 일상을 얼마
나 깊이 떠받치고 있는지 실감하는
수가야 없다.

휴대전화는 연락 수단을 넘어 뉴스와 정보, 업무와 인간관계, 이동과 여가를 잇는 생활의 중심이었다. 책략의 경험을 하고 나니 스마트폰이 필요한 세의 아이들만 아니려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부조진 휴대전화화를 말리하는 것이 정말인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사용을 조절하는 습관이다. 시한폭탄 대접시 화면을 내려놓고 산책하는 주변 풍경에 눈을 돌리고, 하루 중 잠깐이라도 온전히 자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박희선 사회부부장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다. 자식이나 노동 요건에 상관없이 정부가 물려놓은 돈이 아닌 기본소득의 사업사업에 들어가 있다. 소
소 얼마의 기간이 되면 삶의 질을 높여 지역을 활성화한다. 6
는 것이다. 내년에는 사업사업 대상지를 18곳 더 늘린 7
한다. 다음 달 31일까지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8
올해 추가 공모된 내년부터는 전국 35곳에서 노인

큰 기본소득을 사범 운영한다. 2027년까지의 사범
 입학 성과를 토대로 수 입액 전환을 검토한다. 기존
 에서도 공과에 나설 수 있는 곳이다. 한 권
 지군이다. 장래는 소멸되어 갈수록 대체 장을 독
 한다. 그러나 갈수록의 경우 실제 참여는
 불투명한 상태인 한다. 국지 지역 비율을 더 올린다
 지역 자체 선택 마다에 따르겠다.

가능자 기본소득은 최대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
 권으로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주민등록증 30
 0원 이상 거주하면 인구가 주어진다. 인구의 인구소

지역은 강화·옹진군이다. 이들 군은 일단 사업 참여를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종 사업 신청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사업구조는 농림식품부에서 국비 50%를 지원한다. 나머지 50%는 인천시와 군에서 부담해야 한다. 강화·옹진의 농어촌 기본시설에 필요한 자재 예산만 수백억원이다.

화군 인구가 7만여명이다. 1년간 농어촌 기본
을 주려면 1천260억원이 필요하다. 국비 지원
억원 외에 시비와 군비가 각각 315억원 필요
다. 웅진군은 1만9천여명이다. 한 해 518억원이 있
다. 아랫 역시 시비와 군비를 130억원씩 마
야 한다.

다. 농어촌 기반소득이 양극화·감소지역의 인구 증가·인간인하는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 지역에서는 공공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준비에 나서 있다. 경북 봉화, 경남 하동·신창, 전라 장흥군 등이다. 지난해 시범사업 공모에도 전국 14개 시도 69개 군·중 49곳에서 신청했다. 8.2대 경쟁률이었다.

중 80%가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복지 지출 등 비용이다. 강화·옹진도 마찬가지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기존 복지 지출을 줄여야 할 형편이 국내 지원 예산도 농어촌특별세수를 전용하는 재정이란다. 시작부터 지속 가능성이 위태로운 농어촌 기본소득이다.

친해의 자연환형! 예술남의 기량으로 아른신을 모십니다! **상신노인전문요양원**

☑ 서비스안내

- 1. **입원간호 서비스**
간호사의 24시간 응급처치, 복약지침, 재활치료 등 종합적인 연계 진료
- 2. **입실상생전 서비스**
간호사의 24시간 응급처치, 복약지침, 재활치료 등 종합적인 연계 진료
- 3. **입실간병 서비스**
간호사의 24시간 응급처치, 복약지침, 재활치료 등 종합적인 연계 진료

☑ 안소 다스리기

• 노인장기요양등급을 1~4등급(수급등급) 판정을 받은 자 인정 • 국가노년복지사업대상자(노년인정) 판정 후 본인 부담금 10%만 부담

상신노인 전문요양원: 031-582-9080, 031-582-9081 | 홈페이지: www.sangsincaire.com